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

Global Value Chain(GVC) Insight



금주의 GVC Insight



최신 GVC 해외 이슈

【천연가스, 유럽】 유럽 천연가스 가격,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개시 이후 최저

【설탕, 국제】 설탕 가격 1년 동안 16.5% 상승, 슈거플레이션 우려

【반도체, 미국】 美 상무장관 반도체 지원법(CHIPS Act) 중요성 강조

【몰리브덴, 세계】 2023년 2월 삼산화몰리브덴 가격, 2022년 가을에 비해 2배 상승

【휘발유, 미국】 美 휘발유 가격,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개시일(22.2.24일) 가격보다 하락

【희토류, 세계】 미국-일본, 희토류 독점 거래 계약

【알루미늄, 미국】 미국, 對러시아 제재 추가 발표 - 알루미늄에 관세 200% 부과

【바이아메리카, 미국】 '전기차 충전기 버전 IRA' 등장, 미국산 부품 55% 넘어야 보조금 지급

【희토류, 호주】 호주 희토류 기업 라이너스(Lynas), 7월까지 방사선 폐기물 없애야



GVC 뉴스 더하기

- ① 멕시코 대통령, 리튬 국유화 법안 서명
- ② 핵심 광물안보 파트너십(MSP) 개요·추진 동향
- ③ 포드-CATL 이차전지 협력 관련 미국 현지 동향



GVC 돌보기

러-우 사태 이후 유럽의 가스 수급 현황과 전망



GVC 전문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에 따른 한국의 기회 및 위협요인 3편 - 주요국 대비 경쟁력



GVC 소식통

- ① 해외 진출·투자 지원사업(한국무역협회) 안내
- ② 튀르키예 지진 관련 수출기업 지원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Korea Center for Global Value Chain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

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최신 GVC 해외 이슈

■ 【천연가스, 유럽】 유럽 천연가스 가격,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개시 이후 최저

- 유럽 에너지 위기가 소강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글로벌 천연가스 가격 폭락 중
 - 2.23일 유럽 천연가스 대표 가격지수인 네덜란드 TTF*의 2023년 3월 선물 가격은 메가와트시(MWh) 당 2022년 8월 대비 85% 하락한 50유로 전후에 거래됨
 - * 네덜란드 TTF(Title Transfer Facility)는 유럽의 대표적인 천연가스 거래 허브이며, 인터콘티넨털익스체인지(ICE)가 TTF 운영에 참가
 - 유럽의 2023년 3월 날씨도 따뜻할 것으로 예상되고, 트레이딩 회사 가스인프라유럽에 따르면 2월 말 유럽 천연가스 탱크 저장률은 65%에 달함
- 유럽은 러시아산 천연가스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북미·중동産 수입을 확대함

출처: 아시아경제(02.24) 등 언론보도 KOTRA 종합

■ 【설탕, 국제】 설탕 가격 1년 동안 16.5% 상승, 슈거플레이션 우려

- 2023년 하반기 전 세계적인 이상기후로 사탕수수 작황이 악화되고 설탕·식료품 가격이 연달아 상승하는 '슈거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옴
 - 세계 1위 설탕 생산국 브라질의 라니냐·가뭄, 세계 2위 설탕 생산국 인도의 이상고온·가뭄·홍수, 살충제 규제에 인한 EU의 사탕수수 작황 부진 등이 설탕 생산을 억제할 듯
- 국제 설탕 가격 상승으로 초콜릿·과자 등 설탕을 재료로 생산하는 식품 가격 상승
 - 뉴욕 상품거래소 원당* 평균 가격은 2.12~18일 475.8달러/톤으로 2022년 동기에 비해 17.7% 상승. 런던 국제금융 선물거래소 설탕 평균 가격은 2.19~25일 574.7달러/톤으로 2022년 동기에 비해 16.5% 상승
 - * 원당 : 백설탕의 원료로 사용되는 낮은 단계로 정제된 설탕 - 설탕 회사들은 원당을 재차 정제해 백설탕 생산
 - 설탕을 함유하는 가공식품 원료비 중 설탕 비중은 평균 10%, 국내 제당 회사는 원당을 전량 수입해 설탕을 가공·유통하며 원당가격이 상승하면 설탕·과자·아이스크림 등 가격이 연쇄적으로 인상됨

출처: 매일경제(2.25) 등 언론보도 KOTRA 종합

■ 【반도체, 미국】 美 상무장관 반도체 지원법(CHIPS Act) 중요성 강조

- 美 상무부 지나 레이먼드 장관, 2.23일 조지타운 대학교에서 반도체 지원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연설
 - * ① 39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제조시설 신설·확대·현대화 지원금 ② 110억 달러 규모 반도체 연구개발 보조금 ③ 22억 달러 규모의 인력 개발 예산
- '반도체 제조시설 신설·확대·현대화(390억 달러)' 자금지원 첫 신청일은 2023년 2월 말~3월 초 유력
- 레이먼드 장관, "(해당 법은) 반도체 공장이 대부분 대만에 집중된 상황에 맞서 미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졌다"라며 이는 근본적으로 국가안보 문제라고 강조
 - "각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강력한 제조기업', '공정 기술을 혁신할 수 있는 연구·개발 시설', '특화된 인프라'가 들어설 것이며 미국에 건설되는 반도체 공장들은 경제성이 좋은 첨단 메모리 칩"을 생산할 것"이라고 언급
 - * 자동차, 의료기기, 국방·안보 강화에 주로 활용될 전망

출처: Wall Street Journal(2.23) 등 언론보도 KOTRA 워싱턴무역관 종합

■ 【몰리브덴, 세계】 2023년 2월 삼산화몰리브덴 가격, 2022년 가을에 비해 2배 상승

- 2.13일 기준 삼산화몰리브덴* 가격은 35.4달러/파운드로 5개월 전에 비해 2.2배 상승

* 산소와 몰리브덴의 화합물로 안료·촉매·철강·진공관·내열재료·착색 등에 사용됨

- '구리 광산 가동률 인하', '중국 에너지용 강관 수요 증가'가 몰리브덴 가격 인상에 영향

- '22년 12월 이후 반정부 시위 격화 이후 페루 동광산* 가동률 감소

* 몰리브덴은 구리 등 광물의 부산물로 채굴되며, 동광석 생산량이 몰리브덴 생산량 좌우

- 천연가스 등 에너지 운송 수요 증가로 중국내 에너지용 강관* 생산·판매량 증가

* 페로몰리브덴은 에너지용 강관의 주요 원료로, 2023년 1월 말 '최근 17년 간 최고가'인 104달러/kg 기록

출처: 니혼게이자이신문(2.13) 등 언론보도 KOTRA 종합

■ 【휘발유, 미국】 美 휘발유 가격,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개시일(22.2.24일) 가격보다 하락

- 주요 산유국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서방 제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휘발유 가격은 오히려 전쟁 개시일보다 하락

- CNN, 석유가격정보서비스(OPIS)를 인용해 "2023년 2.24일 미국 전국 휘발유 가격은 3.39달러/갤런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개시일(2022년 2.24일) 휘발유 가격 3.54달러/갤런을 하회했다"고 발표

- 유럽 등 서방국이 가격상한제 등 제재를 가했지만, 러시아산 원유·석유제품 생산·수출량은 전쟁 전과 비슷한 수준 유지

* 러시아산 원유·석유제품에 가격상한제 제재를 가한 유럽도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완전 중단하지는 않음

- 그러나 2023년 3월부터 러시아가 원유 생산량을 일 50만 배럴(전체 생산량의 5%) 감산할 예정인 만큼, 원유·석유제품 가격 반등 가능성 상존

출처: 헤럴드경제(02.24) 등 언론보도 KOTRA 종합

■ 【희토류, 세계】 미국-일본, 희토류 독점 거래 계약

- 미국 내 유일한 희토류 생산 업체인 MP머터리얼스는 일본 종합상사인 스미모토에 직접 희토류를 공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함

- MP머터리얼스는 캘리포니아주에 위치한 '마운틴 패스' 광산에서 채굴하는 희토류를 일본 스미모토에 판매 하고, 스미모토는 일본 기업들에게 MP머터리얼스의 희토류를 독점 배분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

- 그동안 전세계 광산의 희토류는 약한 환경규제로 정제, 제련 개발비가 저렴한 중국으로 보내지는 것이 관행이었으나, 중국의 희토류 자원무기화 가능성이 커지며 점차 중국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임

* 중국 상무부는 지난 16일 희토류 정제, 가공, 이용기술의 수출 금지를 발표하며 희토류 관련 가치사슬에 대한 중국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임

- 마운틴패스 광산은 미국의 핵심광물 공급망 재편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21년도 세계희토류 공급의 15%를 차지. 바이든 대통령은 작년 마운틴패스 광산의 희토류 가치사슬 확장을 위해 3천5백만 달러의 펀딩을 발표한 바 있음

- MP머터리얼스는제련 공장 뿐 아니라 산업에 필수적인 희토류 영구자석 공장을 텍사스에 건설할 예정

출처: 블룸버그('23.2.22), 이데일리('23.2.23) 등 언론보도 한국무역협회 종합

■ 【알루미늄, 미국】 미국, 對러시아 제재 추가 발표 - 알루미늄에 관세 200% 부과

- 미국은 3.10일부터 러시아에서 생산되는 알루미늄에 200% 관세를 부과하며, 4.10일부터는 러시아에서 제련, 주조된 1차 알루미늄 양에 관계없이 알루미늄 수입품에 대해 200%의 관세를 부과할 예정
 - 러시아의 알루미늄 제련 및 제조 기업인 루살은 전 세계 알루미늄 공급량의 6%를 차지하는 만큼 글로벌 제조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됨
 - 백악관은 “미국의 새로운 제재는 러시아의 전쟁을 지원하는 제 3국 활동가를 포함해 200개 이상의 개인 및 단체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힘
- 이번 추가 제재와 관련하여 백악관은 “러시아에 대한 약 28억 달러에 달하는 100개 이상 러시아 금속, 광물 및 화학제품에 대한 관세가 인상됨에 따라, 러시아에서 제련되거나 주조된 알루미늄이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데에는 상당한 비용이 들 것”이라고 강조
 - 일부 분석가들은 “러시아가 미국의 니켈, 팔라듐에 보복 관세를 물릴 수 있다”고 지적

출처 : 블룸버그(23.2.24), 동아일보(23.2.25) 등 언론보도 한국무역협회 종합

■ 【바이아메리카, 미국】 ‘전기차 충전기 버전 IRA’ 등장, 미국산 부품 55% 넘어야 보조금 지급

- 미국은 바이아메리카 법안 세부 규정으로 전기차 충전기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미국산 철강을 쓰고, 최종 조립 또한 미국에서 이뤄져야한다는 규정을 추가함
 - 비중 기준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는 전기차에 미국산 부품을 55% 이상 사용해야하며, 새롭게 충전기와 관련해 미국산 철강의 사용까지 규정이 추가된 것
 - * 미국산 부품의 비중 기준은 당초 ‘올해까지 25%, 내년 1월부터 55%’로 예정되어있었으나 이를 6개월 유예한 것
- 3월 말에 예정된 광물 원산지 기준을 포함한 IRA 세부 규정 발표에 리튬, 코발트 등 중국산 배터리 소재 의존도가 높은 한국 업체는 IRA 내용 중 ‘우려집단’(Foreign Entity of Concern)의 정의에 초점을 두고 있음
 - * IRA에는 “미국의 우려집단으로부터 부품이나 핵심광물을 조달받을 경우 세액공제에서 제외”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음
- 한편, 미 정부는 아메리카 퍼스트 전략을 중심으로 전기차와 더불어 반도체 규제 조치를 마련해왔음
 - 지난 2월 중국 첨단 반도체 및 장비 수출통제와 관련하여 한국 기업의 중국 내 반도체 생산 제한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으며, 3월 중 반도체 지원법(CHIPS Act)에 대한 세부지침을 발표할 예정

출처 : 동아일보(23.2.27) 등 언론보도 한국무역협회 종합

■ 【희토류, 호주】 호주 희토류 기업 라이너스(Lynas), 7월까지 방사성 폐기물 없애야

- 호주 희토류 업체로 말레이시아에 제련공장을 운영 중인 라이너스(Lynas)가 3년의 운영기한 연장을 승인받았으나, 방사성 폐기물을 없애야 한다는 조건부 승인임
 - 말레이시아 당국은 라이너스의 공장운영 갱신을 2026년 3월까지로 승인했으나, 방사성 폐기물 생산 금지 조건에 따르지 못하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밝힘
 - * 말레이시아 당국은 갱신을 허가하며 침출 공정에서 방사성 폐기물이 발생하는 운영 활동을 7월까지 중단할 것과 방사성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영구처리시설 건설, 호주로부터 희토류 원소인 란타넘족을 수입하지 않을 것 등의 조건을 걸었음
- 라이너스는 중국 외 희토류 생산업체 중 1위로, 말레이시아의 공장의 일부 공정이 폐쇄되면 세계 희토류 공급망의 혼란과 희토류 가격상승이 예상됨
 - 라이너스는 국제원자력기구의 2건의 검토를 근거로 공장의 위험성이 낮고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희토류 정광 수입 및 가공을 금지하는 조건의 해제를 위해 행정과 법적 항소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힘

출처 : CNews(23.2.16) 등 언론보도 한국무역협회 종합



GVC 뉴스더하기 ① : 멕시코 대통령, 리튬 국유화 법안 서명

◆ 멕시코 대통령은 2023년 2.18일 '소노라주 리튬 채굴보호구역 지정' 법안에 서명하였으며, 멕시코 정부가 리튬 매장 주요지역 탐사·채굴권을 독점하게 되었다. 관련 동향 및 전망을 알아보자.

■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이하 AMLO) 대통령, 2.18일 '소노라주 리튬 채굴보호구역 지정' 법안 서명

- 멕시코 정부가 아리베치·디비사데로·그라나도스·우아사바스·나코리치코·사우아리파 소노라주 6개 지역 2,348.55km² 규모의 리튬 매장지 탐사·채굴권을 독점하게 됨

- AMLO, "멕시코 리튬은 멕시코 국민의 것"이라며 러시아·중국·미국도 손댈 수는 없다"고 발언
- AMLO가 발의한 광물법 개정안(Ley Minera)*은 2022년 멕시코 상·하원을 통과했으며, 2.18일 대통령이 법안을 서명함으로써 에너지부가 본격적으로 리튬 탐사·채굴을 담당하게 됨

* 리튬 탐사·채굴을 정부가 독점하도록 하는 내용의 멕시코 광업법 개정안

〈광업법 개정안 상세 내용〉

▲리튬 탐사·채굴·활용에 대한 독점적 권한을 국가에 부여 ▲멕시코 국민을 위한 독점적 혜택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 및 외부기관에 '리튬 프로젝트 양허·채굴권 계약' 승인·지정·허가 등 불허

- 멕시코 정부, 2023년 초 국영 리튬개발 기업 리티오멕스(LitioMex)*에 첫 채굴권 부여 예정

* 리티오멕스 설립 근거는 광업법으로 AMLO정부는 2022년 4월17일 광업법을 발의해 4월19일 상·하원 통과
- '22년 8월23일 기관 세부내용을 명시하는 대통령령 발표(리티오멕스 근거법·역할·조직구성·재원마련·설립지 포함)

- 리티오멕스는 에너지부 산하기관으로 기관장은 에너지부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
 - 멕시코 리튬 개발·활용 관련 전반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리튬 주요 매장지 소노라주에 사무소 운영
- * 리튬 탐사·채굴·활용, 중장기 계획 수립, 엔지니어링 프로젝트 기획·추진, 리튬 파생상품 관리·통제 등

■ 멕시코 리튬 매장량

- 멕시코 지질조사국은 2020년 소노라주에 리튬 2억4,300만 톤이 매장돼 있다고 보도했으나, 2021년 실제 추출 가능량은 85만 톤 정도라고 정정

- 멕시코 리튬 매장지역은 18개 정도로 추정되며, 미국 지질조사국은 멕시코가 전 세계 매장량 8,900만 톤 중 2%를 보유한다고 추정

* 멕시코는 2015년부터 정부 차원에서 멕시코지질조사국 통해 리튬 매장량 조사 시작

■ 멕시코 리튬 국유화가 해외 투자기업에 미치는 영향

- 中 간펑리튬 등 12개 외국 회사가 멕시코 리튬 채굴권을 가지고 있으나, AMLO는 "이들 회사의 채굴권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 표명

* 멕시코 소노라주 최대 광산 프로젝트는 중국 간펑 리튬(江西, 鋒業公司) 산하 바카노라 리튬이 담당
- 간펑리튬은 세계 3위 리튬 생산기업으로 칠레·멕시코 등 중남미 내 많은 리튬 개발프로젝트 추진 중

- 테슬라 등 전기차 업체, 멕시코 내 전기차 공장 건설 검토 중

- 미국과 인접한 멕시코에 공장을 건설해 지리적 이점을 취하는 동시에 리튬 공급망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전략

- 광업법 개정안*에 리티오멕스가 민간과 협력할 수 있는 법제적 근거는 마련됨

* 광업법(8절13조), 리티오멕스가 '리튬·파생상품' 생산·가공·배분에 있어 민간·공공기관과 제휴할 수 있다"고 규정

- 외신, '멕시코 정부·해외 광산회사가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리튬을 공동 개발하는 사업모델' 가능 전망



GVC 뉴스더하기 ② : 핵심 광물안보 파트너십(MSP) 개요·추진 동향

◆ 미국·캐나다 등 12개국은 對중국 핵심광물 의존도를 탈피하기 위해 '22년 6월 핵심 광물안보 파트너십(MSP)'을 설립하였다. 회원국들은 핵심광물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투자도 추진하기로 하였다. 관련 개요 및 추진 동향을 알아보자.

■ '핵심 광물안보 파트너십(MSP)' 개요

- 美 주도 다자간 파트너십으로 중국을 견제하고 美 중심의 새로운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 목표
 - 한국·미국·일본·캐나다·독일·프랑스·영국·호주·핀란드·노르웨이·EU집행위원회·스웨덴 12개국 참가
 - 리튬, 코발트, 니켈, 망간, 흑연, 희토류, 백금족 등 7개 핵심광물을 회원국 협력 대상으로 선정
 - * 미국 지질조사국 2019년 조사에 따르면 배터리용 광물별 정제능력 주요국 비중은 △리튬 : 중국 60%, 칠레 30% △코발트 : 중국 72%, 핀란드 9% △클래스1 니켈 : 러시아 21%, 중국 16%
- MSP 참여국 간 핵심광물 개발사업 검토
 - 회원국 간 정례 회의 통해 △핵심 광물 정보 공유 △회원국 공동투자 등 추진 예정
 - * MSP, 향후 몇 달 동안 광물 보유국과 접촉하고, MSP 협정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프로젝트 선정 계획
 - LG에너지솔루션·SK온·포스코홀딩스는 MSP가 호주·아르헨티나에서 추진하는 희토류·니켈·리튬 시범 광산 프로젝트 참여 검토 중(2월21일 매일경제)
- MSP 참석자들은 핵심광물 채굴·제련·재활용 분야에서 ESG 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정부와 민간의 투자를 견인해 나가기로 합의

■ '핵심 광물안보 파트너십(MSP)' 회의 추진 이력

- ('22년 6.14일)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 출범식 (캐나다 토론토)
 - 이도훈 외교부 2차관, 유법민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국장 참가
 - 참석자들은 핵심광물이 세계 경제 발전과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에 중요하며, 투명성·개방·안전성·지속가능성·핵심광물 공급망을 갖추는 것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것에 공감
- ('22년 9.22일) 77차 유엔총회 계기,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 장관급 회의 (미국 뉴욕)
 - 박진 외교부 장관 참가
 - 아르헨티나·브라질·콩고민주공화국·몽골·모잠비크·나미비아·탄자니아·잠비아 8개 핵심 자원 보유국도 참가
 - 핵심광물 채굴·가공·재활용 관련 우선순위·도전과제·기회 등 논의
 - * 美국방부, "MSP는 국가들이 보유한 광물 자원 경제개발 잠재력을 온전히 실현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핵심 광물의 생산·가공·재활용을 지원하겠다"고 발표
- ('23년 2.7일)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차관급 회의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
 - 이도훈 외교부 2차관, 산업통상자원부 광물자원팀장, 광해광업공단 본부장 참석
 - 2023년 아프리카 광업 행사 마이닝 인다바(Mining Indaba)* 연계 개최
 - * 아프리카 광업 관련 기업·정부 간 정보교류와 투자 협의를 위해 매년 2월 개최되는 아프리카 최대 규모의 광업 행사
 - △MSP 시범 프로젝트, △아프리카 자원부국과 협력방안, △지속가능한 핵심광물 개발 등 논의
 - * MSP 파트너국 외 탄자니아, 잠비아, 민주콩고 등 7개 아프리카 자원보유국 차관급 인사 참석



GVC 뉴스더하기 ③ : 포드-CATL 이차전지 협력 관련 미국 현지 동향

◆ 美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을 통해 脫중국화 정책을 펴고 있는 와중에 포드는 CATL과 협력하여 美미시간주에 이차전지 공장을 건설한다고 발표했다. CATL은 기술지원만 담당하여 IRA를 위반하지 않기에 포드 이차전지 공장은 IRA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美·中정기권은 다양한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자.

■ 포드, 2023년 2월13일 中 CATL과 협력하여 이차전지 공장을 건설할 것이라 발표

- 포드 단독으로 미시간주 마셜에 35억 달러 투자하여 연 35GWh 규모 리튬인산철(LFP) 공장 건설, 2026년부터 생산 개시
 - CATL, LFP 배터리 광물 배합식 등 생산 기술 제공(라이선스), 기술진 파견
 - 포드 단독 투자·운영으로 '우려국이 생산·조립한 부품을 사용했을 때의 제재'와 '대미 외국인 투자 심의 위원회(CFIUS)' 회피

■ 美·中, 양국 정부 반응

- 中, 2023년 2월16일 포드-CATL 간 기술 라이선스 계획을 검토할 것이라 발표
 - CATL의 배터리 관련 핵심 기술이 포드에 유출될 가능성을 우려, 고위급에서 추가적인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짐
 - 해당 계약을 중국에서 취소하진 않을 것으로 전망
 - * 해당 계약 건은 이미 중국 정부 실무선의 검토는 완료된 상황
- 美 정치권, 포드-CATL 계약 대해 '외국인 투자 심의 위원회 심사·의회 조사' 실행 의사 밝혀
 -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 2월13일 미 재무부·에너지부·교통부에 해당 계약에 대한 '대미 외국인 투자 심의 위원회' 검토를 요청하는 서한 발송
 - 조 맨친 상원의원, 2월15일 전기차 공급망의 높은 대중국 의존도를 우려하며 포드에 대해 '강도 높은 질의'를 취할 예정임을 시사
- 다만, 美 행정부·주정부 일각은 포드-CATL 협력을 환영하는 의사 밝혀
 - 미시간주 정부는 주지사가 포드의 투자 발표 때 동석하는 등 포드의 결정을 환영하며 약 10억불 규모의 인센티브 패키지로 화답
 - 미시간 주지사를 역임한바 있는 제니퍼 그랜홈 에너지부 장관도 2월13일 해당 계약을 바이든 대통령의 업적으로 긍정하는 트윗을 남김

■ 전망, 韓이차전지 회사에 미치는 영향

- (K배터리) 기존 계약 영향도는 미미, 미래 계약은 우려
 - 이번 계약은 기존 NCM 배터리 대체보다는 포드 저가 모델 신설에 따른 신규 물량 확보로 해석 가능
 - 이번 계약이 중국의 관련 특허 독점이라는 LFP 배터리의 단점을 해소해주는 선례가 될 경우, 미래 NCM 배터리 수요 감소 가능
- 로펌들은 포드-CATL 협력이 현행 법·제도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
 - 단, 의회 차원의 제재 움직임이 있어 만약 관련 규정 신규 입안 및 소급 적용 시 상황이 바뀔 수 있음



GVC 돋보기 : 러-우 사태 이후 유럽의 가스 수급 현황과 전망

◆ 러-우 사태 이후, 러시아가 對유럽 가스 공급을 크게 줄이면서 유럽 가스 시장은 전례 없는 수급 불안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22.3분기에는 유럽의 가스 가격이 최고치를 경신하였다. 러-우 사태 이후 달라진 유럽의 가스 수급 현황과 향후 전망에 대해 살펴보자

■ '22년 유럽의 가스 수급 현황

① 유럽의 가스 공급

- 러-우 사태 이후, 러시아는 유럽으로의 가스 공급을 절반 이상 축소하였고, 이로 인해 유럽의 가스 공급 위기는 유럽 가스시장뿐만 아니라 세계 가스시장에 유래 없는 가격 상승 압박을 가함
 - 러시아의 유럽 PNG 공급(량)은 '21년 140bcm에서 '22년 약 60bcm으로 감축
 - '22.1월~11월 TTF(유럽가스가격)은 평균 € 130/MWh(\$40/MBtu)으로, '16~'20년 평균보다 7배 이상 높음
- 그 결과 유럽의 세계 LNG 시장에 대한 공급 의존도는 급증하였고, 특히 현물시장에서 목적지에 제한받지 않은 미국산 LNG가 큰 비중을 차지
 - '22년 유럽의 LNG 수입(량)은 '21년 대비 약 60% 증가(약 50bcm)한 것으로 추정되며, 추가로 수입된 LNG 물량의 약 2/3은 미국산임
- '22년 유럽의 대규모 LNG 수입은 중국과 남아시아 국가들의 LNG 수입 감소로 가능
 - 중국의 '22년 LNG 수입은 '21년 대비 20%(20bcm) 감소한 것으로 추정
 - 아울러, 유럽의 LNG 도입이 증가함에 따라 현물가격이 상승하여 가격에 민감한 국가들(특히 남아시아 국가들)의 LNG 수입이 크게 감소

② 유럽의 가스 소비

- 높은 가스 가격으로 인해 '22년 유럽의 가스 소비는 전년 대비 10% 이상(약 50bcm) 감소한 360bcm으로 추정
 - 소비 감소는 주로 높은 가격에 따른 연료 전환, 산업 부문에서의 제품생산 감소, 소비자의 행동변화, 평년 보다 온화한 날씨, 에너지 소비효율 개선, 회원국 정부들의 적극적인 소비절약 조치 등에 기인
 - 다만, 발전부문은 '21년보다 '22년에 가스 소비가 증가한 유일한 부문인데, 유럽의 이상기후에 따른 수력발전량 감소, 다수의 노후 원전 고장에 따른 원자력 발전량 감소 등으로 높은 가스 가격에도 불구하고 발전 부문에서의 가스 수요는 증가

③ 유럽의 가스 비축

- 유럽의 가스 비축은 러-우 사태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여 '22.11월에는 의무 비축 목표를 초과 달성
 - '22년 4월~11월 중순까지 유럽의 가스 비축시설에 저장된 가스는 70bcm을 초과하여 비축률은 95%에 도달하였고, '22.12.9일 기준으로 가스 비축량은 과거 5년간 평균치보다 약 15%(11bcm) 증가
 - * '22년 유럽의 가스 의무 비축률은 80%로, '22.11월에 이를 초과 달성
- 높은 가스 비축률과 낮은 수요는 '22.10월과 11월에 가스 가격에 하방압력을 가했고, '22~'23년 동절기에 가스공급 부족 위기 상황을 크게 완화

■ '23년 유럽의 가스 수급 안정화에 위협이 되는 요인

-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3년 유럽 가스시장의 수급 안정에 크게 위협할 수 있는 3가지 요인을 지적

① 러시아의 가스 공급 중단

- '22년 러시아는 유럽으로의 가스 공급을 크게 감소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약 60bcm의 PNG를 공급하였고 여기에는 '22.4월부터 9월까지 러시아에서 공급된 30bcm도 포함
- 즉, 러시아산 PNG는 그동안 직·간접적으로 유럽의 비축량을 채우는데 일정 부분 기여함. 그러나 '23년부터는 러시아에서 유럽으로의 PNG 공급량이 크게 감소하거나 전면 중단될 수도 있음

② 중국의 LNG 수요 증가

- '22년에 유럽이 국제시장에서 대량의 LNG를 구입할 수 있었던 것은 중국의 경제성장세 둔화와 강력한 코로나19 봉쇄조치로 LNG 수입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임
- 중국의 LNG 수입 수요가 회복되면 '23년 국제시장에서 LNG 물량에 대한 수입국간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져 유럽으로 공급되는 물량에도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음

③ 동절기 혹한

- '22년 10월과 11월 예외적으로 온화한 기온으로 가정 및 상업부문에서의 가스 소비가 전년 동기 대비 약 30% 감소했지만, '23~'24년 동절기에도 온화한 날씨를 예상하기는 어려움

■ '23년 유럽의 가스 수급 전망

- (수요) 러-우 전쟁 이후, 높은 에너지 가격과 유럽 국가들의 가스 수요 감축 노력으로 '23년 유럽 지역의 가정 및 상업부문 가스 수요는 '23년에도 평년 대비 12~16%(26~35Bcm)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유럽연합(EU)은 RePowerEU를 통해 유럽의 가스 수요를 줄일 수 있는 조치(재생에너지발전원 보급의 가속화, 에너지효율 향상, 특정 산업공정의 전기화 및 수소로의 전환)을 제시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음
- '23년 이후에도 유럽은 가스 수요를 줄이고 러시아산 가스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할 것이므로 유럽의 가스 수요가 전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상

- (공급) 러시아의 PNG 공급이 중단된다는 가정 하에 유럽은 재기화(Regasification) 용량 설비 확대를 통해 LNG 수입물량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

- '23년에 러-우 간 평화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낮으며, 이루어질지라도 유럽은 지속적으로 대체 공급을 확보하면서 재고를 관리하고 있어 유럽에서 러시아산 가스의 점유율이 20%를 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

* S&P Global은 러시아의 對유럽 PNG 공급이 '23년 연간 27.5Bcm 정도에 이를 것으로 전망

- 북서유럽의 LNG 설비용량 증설은 '23년에도 계속될 예정이며, 특히 독일은 '23년 말까지 연간 1,800만 톤을 수용할 수 있는 설비를 추가할 것으로 예상
- 네덜란드와 독일에서 부유식 저장 및 재기화 설비(FSRU)가 추가되면서 LNG 수입에 대한 물리적 인프라 제약이 완화되어 북서유럽 전역의 PNG 도매가격을 나타내는 TTF 벤치마크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
- 중국의 LNG 수요는 엄격한 코로나 규제로 인해 산업부문의 소비가 크게 감소하면서 여전히 약세를 보이고 있어 유럽은 글로벌 LNG 시장의 경쟁 완화로 인한 수혜를 보고 있음
- 또한, 아시아 대비 유럽의 LNG 가격 프리미엄이 높아짐에 따라 '23년 여름 유럽의 LNG 구매량 전망치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



GVC 전문가 :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에 따른 한국의 기회 및 위협요인」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도원빈

◆ 지난번 47호에서는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 품목의 공급구조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번 편에서는 **주요국 대비 우리나라 반도체 경쟁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반도체 경쟁력은 ①**미세공정 기술경쟁력**, ②**수출경쟁력**, ③**생산능력**으로 구분하고, 원문 보고서가 발간되었던 2022년 12월을 기준으로 비교·분석하였다.

〈반도체 시리즈〉

(46호) 반도체 제조 공정
(47호) 우리나라 공급구조
(48호) 주요국 대비 경쟁력

■ (미세공정 기술경쟁력) 한국과 대만이 3나노 공정 개발에 성공하여 세계 선두를 달리고 있음

- (상위권 : 한국, 대만) 삼성전자가 올해 6월 3nm 제품 양산에 세계 최초로 성공한 데 이어 TSMC도 9월에 3nm 기술력 확보에 성공하면서 다른 기업들과의 기술력 격차를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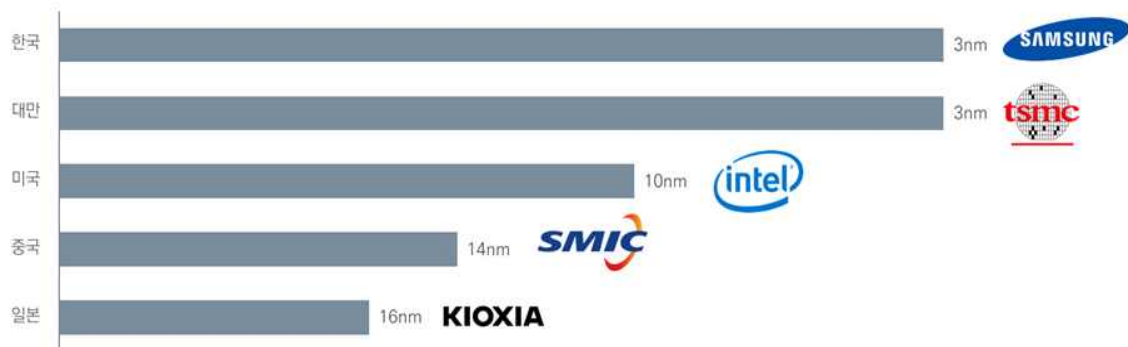
- 한국은 3나노대 기술력 진입도 대만에 앞섰을 뿐만 아니라 메모리반도체 분야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 기술을 보유하면서, 세계 D램 메모리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2022년 2분기 D램 시장점유율(%) : (1위) 삼성 43.4, (2위) SK하이닉스 28.1, (3위) 마이크론 23.6

- (중위권 : 미국, 중국) 양국의 대표적인 반도체기업인 인텔과 SMIC의 기술 수준은 각각 10nm, 14nm로 중위권에 머물러 있음

- (하위권 : 일본) 일본은 1990년대까지 메모리반도체 분야의 선도국이었으나 미국의 견제, 가격경쟁력 약화 등으로 반도체 산업이 쇠퇴하면서 기술력이 주요국 대비 뒤쳐진 수준

- 일본의 반도체 제조업체 Kioxia는 낸드플래시 반도체를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으나 2021년 기준 낸드플래시 세계시장 점유율은 6.4%에 불과
- '21년 낸드플래시 시장점유율(%) : 삼성(51.5), 인텔(19.6), SK하이닉스(9.7), Kioxia(6.4) 등

〈 주요국 반도체 미세공정 기술경쟁력 비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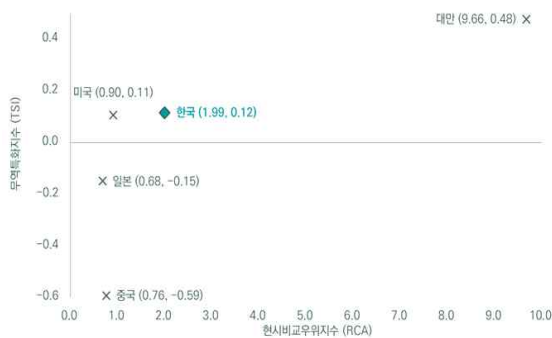
자료 : OMDIA, 언론보도 자료 종합(2022년 12월 조회 기준)

■ (수출경쟁력) 시스템반도체는 대만이, 메모리반도체는 한국이 주요국 중 1위를 차지

- RCA(현시비교우위지수)와 TSI(무역특화지수)는 경제규모가 서로 다른 국가들 간에 특정 상품의 수출 경쟁력을 비교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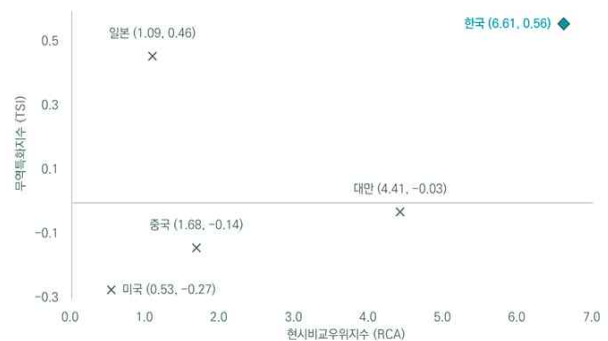
- RCA 수치가 1보다 크면 주요국 대비 경쟁력이 강하고, 1보다 작으면 경쟁력이 약하다고 해석
 - TSI 수치는 0보다 작으면 수입에 특화, 1보다 크면 수출에 특화된 구조라고 해석
- 시스템반도체 수출경쟁력은 대만이 RCA 9.66, TSI 0.48로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고, 우리나라는 RCA 1.99, TSI 0.12로 대만에 이어 주요국 중 2위를 차지
- 메모리반도체 수출경쟁력은 우리나라가 RCA 6.61, TSI 0.56으로 주요국 중 1위를 차지

〈 시스템반도체 주요국 수출경쟁력 〉



자료 : 한국무역협회, UN Comtrade, 2021년 기준

〈 메모리반도체 주요국 수출경쟁력 〉



자료 : 한국무역협회, UN Comtrade, 2021년 기준

■ (생산능력) 자국 내 반도체 생산량이 가장 많은 국가는 대만(1위)과 한국(2위)

- '자국 내 반도체 생산량'이란 국내·해외기업을 막론하고 해당 국가 내에서 생산된 반도체의 물량을 의미하는데, 최근 공급망 안정성 확보가 중요해지면서 자국 국경 내에서 충분한 **자급능력**을 갖추었는지도 중요한 경쟁력 요소로 떠오르기 시작함
- 예를 들어 미국의 「반도체 및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은 타국 반도체기업이 미국 내에 생산기지를 이전하도록 유인책을 제공하는 정책임
- 2021년 기준 대만 내에서 생산되는 반도체는 전 세계 생산량의 24.2%로 전 세계 1위를 차지하였고, 이어서 한국(19.9%), 중국(17.6%), 일본(14.7%), 미국(10.2%) 순으로 나타남

〈 주요국의 자국 내 반도체 생산량 〉

(8인치 웨이퍼 1,000장 환산 월평균 생산량, %)

순위	국가	생산량	비중
1	대만	4,180	24.2
2	한국	3,429	19.9
3	중국	3,043	17.6
4	일본	2,537	14.7
5	미국	1,752	10.2
세계		17,249	100.0

자료 : OMDIA, 2021년 기준



GVC 소식통 : 한국무역협회 지원사업 안내

■ 글로벌통상포럼 개최(제2회)

- 급변하는 국제통상환경 점검 및 민관 통상협력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한국무역협회 지원 세미나
- 지원 기간 : 2. 23일~ 3. 9일
- 지원 대상 : 해외 시장 진출 및 투자에 관심있는 기업 관계자
- 참가 신청 : 온라인 신청 링크(참가비 무료)
(한국무역협회 > 협회지원사업 > 제 2회 글로벌통상포럼 개최 > 사업참가신청 클릭)
- 포럼 주요 내용
 - ① (일시 및 장소) 2023. 3. 9(목) 15:00~17:10, 트레이드타워 51층 대회의실
 - ② (주요 프로그램)
 - 최신 통상환경 평가 및 통상외교 중점 추진 국가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 조성대 실장)
 - 한국무역협회 통상협력사업 추진 계획 (한국무역협회 국제협력실 박선경 실장)
 - 제조기업 미국 투자지 선정과 인센티브 협상전략 (넬슨멀린스 신우진 변호사)
- 문의처 :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 ☎ 02-6000-5620

■ 재외상무관 초청 1:1 수출 기업 상담회

- 해외 시장 진출 지원 및 애로 해소를 위한 한국무역협회 지원 사업
- 지원 기간 : 2. 22일~ 3. 3일
- 지원 대상 : 해외 시장 진출 및 투자에 관심있는 기업 관계자
- 참가 신청 : 온라인 신청 링크 (참가비 무료)
(한국무역협회 > 협회지원사업 > 2023 재외상무관 초청 1:1 수출 기업 상담회 개최(3/10) 클릭)
- 상담회 주요 내용
 - ① (일시) 2023. 3. 10(금) 14:00~17:00 (국가당 상담시간 30분)
* 질문내용 사전 제출 필수, 상무관-참가기업 매칭 완료 후 일정 개별통보(이메일)
 - ② (내용) 26개국 상무관 총 31명을 초청하여, 우리 기업과의 맞춤형 상담을 통해 해외진출 정보 제공
 - ③ (초청 국가 및 상담 스케줄) 26개국 31개 지역, 1사당 4개국까지 신청가능
 - (초청국가) 미주, 유럽, 아시아, 중동/아프리카

구분	국가 및 지역	국가명
미주	2개국 (4 지역)	미국(워싱턴, 뉴욕, 휴스턴), 페루
유럽	6개국 (7 지역)	스위스, 영국, 독일, 프랑스(파리, OECD대표부), 벨기에, 러시아
아시아	11개국 (13 지역)	중국(북경, 홍콩), 일본, 말레이시아, 베트남(하노이, 호치민), 태국, 필리핀, 인도,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중동/아프리카	7개국 (7 지역)	나이지리아, 남아공, 가봉(&적도기니), 이란, 카메룬, UAE, 사우디

- 문의처 : 한국무역협회 해외마케팅실 ☎ 02-6000-5289 Email: jw.han0306@kita.or.kr



GVC 소식통 : 튀르키예 지진 관련 수출기업 지원

■ 튀르키예 수출·투자진출 기업 애로 상담 다이렉트 콜

- 튀르키예 지진 관련 수출 애로·기회 사항 발굴, 긴급 구호물품 지원 관련
- KOTRA 주관 상담 서비스
 - 애로 상담 : 통합안내: ☎1600-7119 → 2번(해외진출 및 인증상담) → 4번(중동·아프리카·CIS)
 - ※ 온라인상담: [바로가기](#)
 - 지원 사업
 - 수출 애로 해결 및 기회 발굴 위한 對튀르키예 사업파트너 연결지원·거래선 관심도 조사·거래 교신 지원 서비스

■ 수출24 글로벌 대행 서비스(튀르키예)

- 지원대상 : 지진 발생으로 對튀르키예 수출 애로가 있는 중소·중견기업
- 지원내용 : 튀르키예 수출 애로 지원을 위해 기존 수수료에서 50% 할인된 금액으로 서비스 제공

〈튀르키예 지진 관련 수출기업 특별 지원 서비스 내역〉

서비스명	지원내역	서비스수수료(VAT 별도)		신청하기
		기존	변경	
사업파트너 연결지원	신청기업 제품에 관심 있는 바이어 발굴 (2~3개사)	건당 30만원	건당 15만원	바로가기
거래선 관심도 조사	신청기업 제품에 대한 바이어의 관심유무 조사	1개사당 5만원	1개사당 2만 5천원	바로가기
거래 교신 지원	교신이 불가능한 바이어의 상황 확인 및 교신 지원	건당 15만원	건당 7만 5천원	바로가기

- 문의처 : 해외진출상담센터, ☎02-3460-7339/7335

■ 물품 지원

- 튀르키예 지진 발생에 따른 기업 차원의 인도적 구호물품 지원 희망 시 아래 링크로 신청

☞ URL : [바로가기](#)

튀르키예 지진 피해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수출애로, 수출기회 발굴, 긴급 구호물품 지원 관련 상담 신청 안내

통합안내

☎ 1600-7119

2번 → 4번



글로벌 경제지표('23. 2. 28. 화)

[환율]

	'21말	'22.12말	'23.1말	2/24	2/27	2/28	전일비	22말비
₩/US\$	1,188.80	1,264.50	1,231.90	1,304.80	1,323.00	1,322.60	△0.03	4.59
선물환(NDF, 1월물)	1,190.00	1,265.30	1,231.10	1,303.20	1,321.80	1,322.20	0.03	4.50
₩/CNY	186.51	181.44	182.51	188.26	189.79	190.72	0.49	5.11
₩/¥100	1,032.48	945.56	946.01	969.39	970.30	970.50	0.02	2.64
Y/US\$	115.14	133.73	130.22	134.60	136.35	136.28	△0.05	1.91
US\$/EUR	1.1318	1.0617	1.0837	1.0599	1.0536	1.0585	0.47	△0.30
CNY/US\$	6.3681	6.9630	6.7521	6.9277	6.9652	6.9411	△0.35	△0.31

* '22년 평균 환율: (₩/US\$) 1292.2원, (₩/¥100) 983.8원 / * '23년 평균 환율('23.1.1~현재): (₩/US\$) 1260.9원, (₩/¥100) 958.0원

[유가/원자재] (원유 \$/배럴, 철광석·비철금속 \$/톤)

구 분		'22년 최저(해당일)	'22.12.31	'23.2.26(전일)	'23.2.27	전일비(2.26)	'22년최저比	'22년말比
원유(두바이)		71.83(12.12일)	78.77	82.07	82.21	0.1 0.2%	10.4 14.5%	3.4 4.4%
철광석		79.50(10.31일)	117.35	126.65	122.5	△4.2 △3.3%	43.0 54.1%	5.2 4.4%
비 철 금 속	구리	7,000.00(7.15일)	8,387.00	8807.00	8751.00	△56.0 △0.6%	1751.0 25.0%	364.0 4.3%
	알루미늄	2,080.00(9.28일)	2,360.50	2307.00	2314.00	7.0 0.3%	234.0 11.3%	△46.5 △2.0%
	니켈	19,100.00(7.5일)	30,425.00	24,850.00	24,600.00	△250.0 △1.0%	5500.0 28.8%	△5825.0 △19.1%

[반도체]

	'21	'22	'22.11월	'22.12월	'23.1월	2/23	2/24	2/27	2월(~27)
D램(8G) 현물가(\$, 기간평균)	3.99	3.07	2.16	2.05	1.93	1.82	1.82	1.81	1.83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	29.9	△23.0	△33.1	△40.3	△48.2	△53.6	△53.6	△53.7	△52.9
낸드(128G) 현물가(\$, 기간평균)	6.55	7.25	6.53	6.53	6.51	6.46	6.46	6.46	6.46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	14.7	10.7	△11.2	△12.4	△13.7	△17.8	△18.0	△18.0	△15.5

[SCFI(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

구 분	'21.12.31	'22.12.30.	'23.1.20	2.10	2.17	2.24	전주(2.17比)	'21년말比
운임지수	5046.66	1107.55	1029.75	995.16	974.66	946.68	△2.9%	△81.2%

[BDI(Baltic Dry Index, 발틱운임지수)]

구 분	'21.12.24.	'22.12.23	'23.2.6	2.13	2.20	2.24	2.27	전일(2.24比)	'21년말比
BDI	2217	1515	608	616	552	883	935	5.9%	△57.8%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Korea Center for Global Value Chain]

문의 산업분석실 (한국무역협회) : gvc_research@kita.or.kr
공급망모니터링실 (KOTRA) : gvc_monitoring@kotra.or.kr

※ 메일 구독(수신) 신청 :

하단 URL 또는 QR코드로 접속하여 신청
<https://forms.gle/twC4m3uNTm14t2sR8>



제작기관



협력기관

